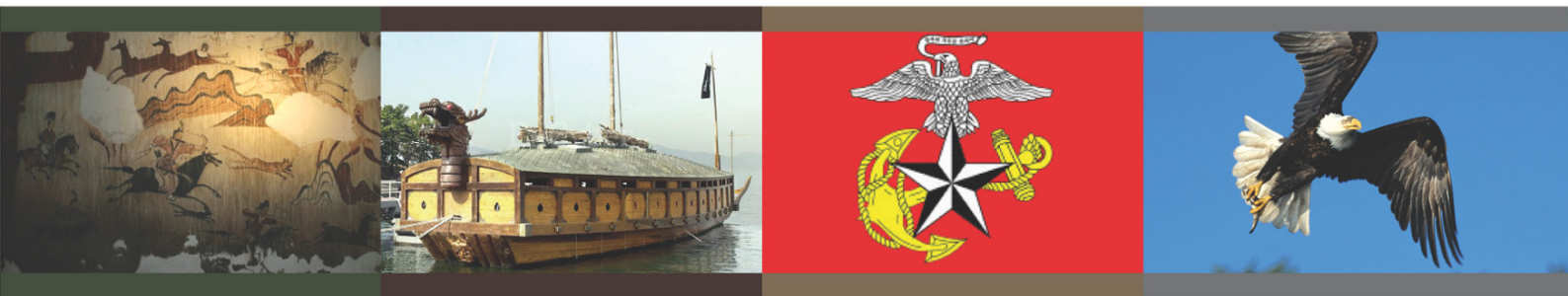


# 전투복의 정체성을 찾아서...

- 육군 · 공군 · 해군 · 해병대의 차별화를 중심으로 -

2006. 10



국회의원 **공 성 진**  
국방위원 · 정보위원

# 목 차

|                                              |    |
|----------------------------------------------|----|
| 1. 서 론 .....                                 | 4  |
| 2. 현행 군 전투복의 착용 실태 .....                     | 7  |
| (1) 우리나라 전투복의 변천사 .....                      | 8  |
| (2) 외국 전투복의 변천사 .....                        | 14 |
| 3. 전투복의 군종별 차별화가 가져올 효과 .....                | 29 |
| 4. 전투복 교체에 대한 디자인 제안 .....                   | 30 |
| (1) 전투복의 애국심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제안 : 문양제안 ..... | 32 |
| (2) 전투복 색상 디자인 설계 .....                      | 35 |
| (3) 전투복 개선 디자인 설계 .....                      | 35 |
| 5. 결 론 .....                                 | 39 |

##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2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의·식·주’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복은 다른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것으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의복이 단순히 신체를 가리거나 추위를 막아 주는 보온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의복은 이런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의복을 입는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를 나타냄과 동시에 멋과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개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복 가운데서도 특히 제복은 이를 입는 사람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제공하는 ‘同化’의 기능과 입지 않는 사람들과의 ‘區分’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군 장병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은 우리만의 고유한 특색도 없으며 ‘同化’와 ‘區分’이라는 기능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투복은 옛 일본군 제복체계를 모방하고 美 군복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져서 우리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군과의 차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투복이 각 군을 상징하는 특색이 없이 육·해·공군 모두가 동일한 전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장병들이 각기 몸담고 있는 군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이나 타 군과의 구분도 어렵습니다.

최근 육군의 베레모 교체계획에 대해 베레모는 특전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모자 하나에도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처럼 큰데 전투복은 어떠하겠습니까?

해병대하면 ‘팔각모’와 ‘빨간 명찰’, 해군하면 ‘세일러복’, 공군하면 ‘빨간 마후라’가 떠오르듯이 전투복도 각 군을 구분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각 군 고유의 특색을 살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군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다룬 정책자료집 제1집 ‘생존이냐, 자주냐!’에 이어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제2집으로 ‘전투복, 그 정체성을 찾아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전투복 체계 개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라며 자료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건국대 의상학과 신효정 교수님과 그 밖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 10. 16.

국회의원 공 성 진

## 1. 서 론

군은 한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단체로 군인의 사기와 군기, 전투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투복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신성한 군인을 상징하는 제복이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와 전술, 군사제도,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지원 등의 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군복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군은 유엔의 깃발 아래 세계 각국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속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인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군복에 대해 새로운 디자인과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 전투복은 1973년부터 지금까지 1990년에 색상만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바뀌었을 뿐, 계속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육·해·공군 3군이 모두 동일한 전투복을 착용함으로써 ‘군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전투복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유통된 전투복이 북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한군과 아군의 구별이 곤란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1996년 북한의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 북한 공작원들이 우리 군과 동일한 전투복을 입고 활동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04년에는 한국군 간부들의 부대마크와 계급장이 부착된 전투복이 ‘인도네시아’ 의류시장에서 무더기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대국민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16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짙은 녹색의 얼룩무늬 패턴의 현재 전투복은 과거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군의 전 복장을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예산 확보 및 디자인 구상 중에 있다. 우리의 경우는 경찰도 대국민 이미지 개선 등을 이유로 제복을 바꾼바 있다.

올해 5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들이 10년 만에 새로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제복은 일반경찰의 경우 기존 연보라 하늘색 상의가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청남색에서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바뀌었으며 종전보다 훨씬 가볍고 땀을 잘 발산해 경찰관들의 쾌적한 근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경찰제복의 개선은 지난 95년 제정된 종전 경찰제복이 디자인과 색상 등에서 시대감각에 뒤떨어진다는 여론과 함께 지난해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경찰이미지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육군은 군복에 대해 군인들이 착용하는 단순한 의복이 아닌 한 나라의 권위와 품위를 나타낼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부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지난해, ‘예산 70억원’이라는 복병을 만나 결국 국방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은 채 보류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투복은 한국전쟁이후 미군 모델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다. 우리는 아직도 독자적인 군복과 군장체계가 아닌, 거의 미국의 군장과 군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국제화된 전장에서 미군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새롭고 능률적인 스타일로 전투복의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우리 군도 세계의 이러한 변화에 맞게 전투복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우리사회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햇볕정책으로 주적 개념이 약화되고 안보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남북간 군사력 비교’ 여론조사에서 약 47%의 응답자가 북한이 우리 군에 비해 ‘정신전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답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정신력 강화, 사기 진작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애국심이 약화되는 것은 서로의 국익을 다투는 국제정세에서 밀려날 수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나라 군인 장병들의 위상과 애국심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전투복은 국가를 수호하는 집단의 제복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육, 해, 공군 각 군마다 유사시에 맡은 바 임무가 각기 다름으로 현재와 같이 삼군 통합의 전투복을 착용하는 것 보다 군 고유의 임무에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 첨단 사회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전투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현행 군 전투복 착용 실태

전투복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신성한 군인을 상징하는 제복이며 훈련이나 전쟁 때에 입는 의복이다. 사실 전투복의 실질적인 기능은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군인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게 해 주며, 군인으로 하여금 소속되어 있는 군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한 표현이 된다.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군인의 신뢰성이나 책임감에는 전투복과 군장 등 외형적인 요소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며, 군인은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단체로 군의 신뢰성과 책임감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은 각군 모두 동일한 전투복을 입음에 따라 각 군별 '동화'와 '구분'의 기능이 없어 '정체성'과 '자긍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 (1) 우리나라 전투복의 변천사

현재 우리나라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 중에서도 전투복의 형태는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창군 이래 병사들이 착용하는 육군 전투복은 여섯 차례 변경됐다. 우리 군은 반세기를 겨우 넘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복 변천사는 나름의 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 시절에는 일정한 제식 없이 여러 가지 군복이 혼용됐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구 일본군의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기도 했으며 1946년 9월부터 미군이 지급한 전투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혹은 미군 전투복을 훔쳐 냈지만 형태가 약간 다른 국산 전투복도 착용했다.



6.25 당시 한국군 전투복

이러한 혼란은 6·25전쟁 중에도 계속됐다. 실물로 남아 있는 군복들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착용한 미 육군용 전투복은 물론이고 정글용 전투복이나 미 해병대·해군용 전투복을 개조한 경우도 발견된다. 규정된 군복 자체가 없었다고 할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54년 9월 1일 육군 잠정 규정 23호를 통해 통일된 전투복 규격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54년형 군복은 미군 군복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상의는 컨버터블 칼라에 다섯 개의 단추를 부착한 형태며 하의는 대퇴부에 속 붙임 사선 주머니를 붙인 일반적인 바지 형태였다.

65년 다시 전투복이 변경됐다. 65년형 전투복은 팔꿈치·무릎·엉덩이 등 쉽게 마모되는 부분에 보강용 천을 덧댄 것이 특징이다. 당시 전술 훈련이 강화되고 야전 진지 보강 작업이 활발히 진행돼 튼튼한 전투복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외출복이 없는 현실에서 덧담이 많은 군복은 품위가 없다는 이유로 2년 만인 67년에 폐지됐다. 67년에 제정된 군복은 54년형 군복과 유사하지만 칼라의 형태가 오브론(oblong) 양식으로 변경됐다. 또 이때부터 병사들이 평시에 입는 군복의 정식 명칭을 작업복이 아닌 전투복으로 부르게 된다.

70년대에는 국가 경제 발전에 힘입어 군복도 한국인의 체질과 특성을 지닐 수 있는 양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 결과 탄생한 군복이 71년형 군복이다. 이 군복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착용하는 것이 전투·훈련·작업 등 각종 활동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칼라의 형태도 전통적인 컨버터블 형태로 환원됐다.

하지만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으면 키가 작아 보이고 외관상 군기가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 군복도 2년 만인 73년에 폐지됐다. 73년에 새로 제정된 군복은 대퇴부 상단에 부착하는 주머니를 소형으로 교체했으며 착용 방법도 상의를 하의 안으로 넣어 입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군복은 90년 11월 23일 형태는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색상만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단색에 비해 위장색 군복은 적에게 식별되지 않아 전장에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녹색의 삼림과 황색의 토양 등 한국의 자연 지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색깔을 감안, 현행 육군 전투복은 흑색 20%, 녹색 30%, 갈색 30%, 모래색 20%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얼룩무늬 전투복은 자연과 동일한 자외선 파장을 가진 카키색 등 4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외선 반사(Infrared Reflectance) 처리가 되어 있어 적외선 야간 감시 장비로도 보기 어려운 위장효과를 발휘한다. 녹색의 삼림과 황색의 토양 등 한국의 자연 지형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깔을 감안해 현재의 전투복은 흑색, 20%, 녹색 30%, 갈색 30%, 모래색 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녹색이 많은 것은 우리 민족의 얼굴·머리카락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다.

현대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군대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전투기술과 무기개발, 디지털화 된 군대 운영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목숨까지도 조국에 바쳐야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군인들의 위상도 높여주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전투복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 < 전투복 변천과정 >

### ■ 육 군

| 연도 | 1946~1946년 3월                                                                                 | 1946~1950년                                                                                                   | 1954~1964년                                                                                          | 1965~1967년                                                                                                                    |
|----|-----------------------------------------------------------------------------------------------|--------------------------------------------------------------------------------------------------------------|-----------------------------------------------------------------------------------------------------|-------------------------------------------------------------------------------------------------------------------------------|
| 복장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일본 군복 등 혼용착용</li> <li>• 표지장만 국군표지장 부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국방색</li> <li>• 상·하 주머니를 크게 부착</li> <li>• 흑색금속 단추 부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국방색 면직</li> <li>• 하의 앞쪽 속주머니, 뒤쪽 붙임주머니로 변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년 명칭변경 (작업복→전투복)</li> <li>• 상의 팔꿈치, 어깨부분 하의 무릎, 엉덩이 부분 보강용 천 덧댐식</li> </ul>       |
| 연도 | 1967~1971년                                                                                    | 1971~1973년                                                                                                   | 1973~1989년                                                                                          | 1990~현재                                                                                                                       |
| 복장 |            |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덧댐식 제거 (팔꿈치, 어깨부분, 무릎, 엉덩이부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편리성 증대를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착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관상 불량 이유로 전투복상의를 하의 안으로 착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장에서의 생존율 제고위해 얼룩무늬로 개정</li> <li>• 하의 측면주머니 부착</li> <li>• 상의 단추 덮개 안으로 부착</li> </ul> |

■ 해 군

| 연도 | 1952~1966년                                                                                                                | 1967~1970년                                                                            |
|----|---------------------------------------------------------------------------------------------------------------------------|---------------------------------------------------------------------------------------|
| 복장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질/색상 : 흑색(동계), 카키색(하계), 모직 또는 혼방</li> <li>• 칼라식, 겹붙임 주머니, 넥타이, 정모 착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제식에 넥타이만 제거</li> </ul>                    |
| 연도 | 1971~1989년                                                                                                                | 1990~현재                                                                               |
| 복장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군 복제 동일</li> <li>• 국방색 면직 또는 혼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군 동일하게 얼룩무늬로 개정</li> </ul>                 |

## ■ 공 군

| 연도 | 1949~1951년                                                                          | 1951~1956년                                                                          | 1956~1971년                                                                            |
|----|-------------------------------------------------------------------------------------|-------------------------------------------------------------------------------------|---------------------------------------------------------------------------------------|
| 복장 |                                                                                     |    |    |
| 내용 | • 미 공군 복제 사용                                                                        | • 국방색 면직 소재<br>• 덩개용 상의주머니                                                          | • 밝은회색 면직 소재<br>• 덩개용 상의주머니                                                           |
| 연도 | 1971~1975년                                                                          | 1975~1989년                                                                          | 1990~현재                                                                               |
| 복장 |  |  |  |
| 내용 | • 각군 복제 동일<br>• 국방색 면직 혼방<br>• 청색 마후라 착용                                            | • 국방색 면직 혼방<br>• 청색 마후라 제거                                                          | • 각군 동일 얼룩무늬로 개정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제공

## (2) 외국 전투복의 변천사<sup>1)</sup>

### ① 미국

세계 여러나라의 분쟁과 전쟁에 파견될 기회가 많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국가일수록 전투복(Battle Dress Uniforms, BDU)의 위장패턴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 육군 23년 만에  
신형전투복으로 디자인 변경

특히 미국은 그 동안의 거의 모든 전쟁과 분쟁지역에 지속적인 파병으로 인하여 충분한 실전경험을 통한 가장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전투복을 개발 운용중이다. 세계 경찰국을 자칭하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주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새로운 전투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 세계의 숲 풀을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조합하여 만들어 낸 우드랜드(WoodLand) 패턴의 위장복을 1980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 위장복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카피되어 사용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상당부분 참조한 패턴을 상용중이다.

미군전투복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스트레이트 컷(Straight Cut) 스타일 :

상의를 바지안쪽으로 집어넣지 않고 밖으로 빼내 입어 상의와 하의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활동의 용이성과 더울 때의 환기성, 한냉지에서의 보온성이 좋다. 소재는 대적외선 은폐효과를 갖는 폴리에스터와 목면의 혼방재질로 옷감의 두께에 따라 4계절용과 열대 하기용의 2종류가 있다.



1) 구자원, 한국군의 개인장구 개선을 위한 디자인 연구 - 전투복 및 개인군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7

## ■ 편의장치

- 허리조정 단추 : 상의의 허리선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 복부의 비만정도에 따라 선택하여 조정, 환기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여성에 군복이 따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여성의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 허리 사이즈 조정장치 : 다양한 인종의 다국적군이므로 각자의 편의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장치를 부착하여 파용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남는 부분의 천이 마찰이 마놓은 앞쪽과 뒤쪽으로 뭉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 내마모성 디자인 : 군복은 상당히 거친 환경 속에서 사용되므로 내마모성이 강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소재에 사용된 폴리에스터가 내마모성이 강하지만 좀더 우수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지형과의 접촉이 자주 일어나는 팔꿈치, 엉덩이, 무릎의 3부분에 두겹의 천으로 보강하였다.



- 다기능 홀더 : 상의의 외쪽 윗부분에 위치한 주머니의 플립(Flap)재봉선 가운데 약 4cm정도를 비워두어 필기도구를 넣거나 후레쉬를 고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머니의 안쪽에는 보조 주머니가 있어 좀 더 확실하게 고정시켜준다.



- 발목 고정끈 :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부대들은 하의의 밑단을 군화속으로 넣어 입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군복 규정에는 전투화 속으로 삽입하여 착용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고정 끈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무링을 이용하여 고정하게 되어있다. 오물의 투습을 막기 위하여 설계되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잘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 다양한 위장무늬

현재 미군은 지형과 부대의 특성에 알맞도록 약 6가지 정도의 위장무늬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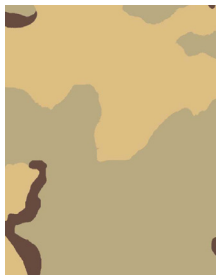
- 우드랜드(Wood Land) : 가장 일반화된 위장 패턴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부분 참조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 삼림의 형태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 모양과 색을 조합하여 만든 패턴으로 세계의 어느 지형에서나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었다. 위장복의 연구는 베트남전부터 본격화 되어 1962~65년 실전 테스트를 거쳐 1967년부터 생산 개시된 리프(Leaf, ERDL <Engineer Research and Development Laboratories>)패턴 위장복의 계량형이며, 1980년부터 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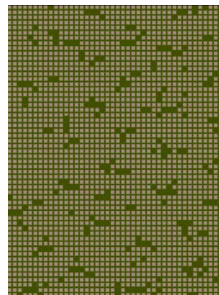
- 사막 6색 위장복 :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위장 패턴으로 중동용으로 만들어진 패턴이다. 통상 6색 DBDU(Desert Battle Dress Uniforms)라 불리우며, 사막 중에서도 약간의 돌이 포함된 사막지형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색의 조합과 무늬가 너무 조잡하여 오히려 위장효과가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 현재는 신형으로 서서히 교체중이다.



- 사막 3색 위장복 : 6색 위장복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패턴으로 현재 사막위장복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의 사막 위장복도 이 위장패턴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사려 되고 있다. 모양과 색의 배합이 비교적 단속하여 위장효과가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의 환경에서도 높은 위장효과를 가진다.



- 야간용 사막 위장복 : 기온변화가 심한 사막에서는 기존의 위장복만으론 야간에 적외선 열 영상 장치에 의한 위장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위장복으로 기존의 위장복위에 덧입는 코트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적외선 반사율이 수풀에 가깝다. 현재 이 위장 패턴을 발전시킨 새로운 전투복이 미 해병대에 보급중이다.



- 어반 캐모(Urban Camo) : 우드랜드 위장 패턴을 단순히 색조만을 변형하여 만든 도시형 위장복으로 통상 시위진압 작전이나 특공작전시 사용되는 패턴으로 일반패션에서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과용된 나머지 새로운 패턴을 연구 중이며, 테스트를 거친 패턴 중에는 테트리스 패턴도 있었지만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 MCCUU(Marine Corps Combat Utility Uniform) : 2002년 1월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패턴으로 컴퓨터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그 무늬 때문에 일명 “픽셀(Pixel)패턴”이라고 한다. NDBDU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의 BDU보다 시각적 결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장효과가 뛰어나다. 의복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상의의 주머니의 각도가 인체공학에 입각하여 약간 비스듬하게 달려있고 군장 착용시 사용이 불가능하던 상의 아래주머니를 삭제하고 대신 팔의 상박에 주머니를 설치하여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은 기존의 BDU를 해병대의 특수부대 SEAL(Sea, Air, Land)대원들에 의해서 개조되어 사용된 전투복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만든 것으로 극히 실전적인 디자인이다.



주한미군은 1980년대 초 도입된 기존 전투복에 20가지 변화를 주고 생존성과 기능성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신형 전투복으로 복장을 교체하고 있다.

미국의 전투복은 23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미군은 2가지 색으로만 사용되었던 위장 얼룩무늬를 지역에 관계없이 녹색과 회색, 사막색 계열을 채택했다. 이 옷은 도시나 사막, 숲 등 어느 곳에서든지 눈에 띄지 않으며 현재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무늬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검은 색이 들어간 것이 다르다. 또한 전투복 겉옷에 단추 대신 지퍼를 달았으며 벨크로를 전보다 더 많이 사용해 소매 단과 주머니는 벨크로로 달게 하였다. 특이한 점은 방탄조끼의 깃 부분으로부터 목을 보호하기 위해 차이나 칼라를 쓴 것이다. 또 상의 아랫부분에 있던 주머니도 장병들이 각종 무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 어깨 부분으로 옮겼다.

단추식으로 돼 있던 상의 역시 아래 위 어느 쪽에서든 열 수 있도록 지퍼식으로 바꿨다. 양쪽 무릎과 팔꿈치 부분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대 삽입을 위해 작은 주머니를 달았는데 새로운 디자인이 2006년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 < 미군 전투복 복제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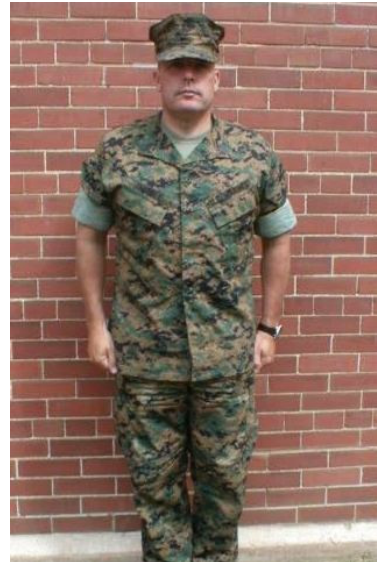
### ■ 미 육군 전투복 : Army Combat Uniform (약칭 : ACU)

- Army Combat Uniform은 미 육군의 신형 전투복으로 위장 무늬는 universal camouflage digital pattern을 채택하였으며, 색상은 삼림, 사막, 도시 지역에 적합하도록 녹색, 갈색, 회색을 적절히 조화
- ACU의 특징은 가슴에 착용하는 명찰, 계급장, 부대 표식 등을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끈끈이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고, 어깨 부분에 피아식별장치 (IFF)를 부착할 수 있는 주머니가 부착
- 목 부분 옷깃은 "Mandarin Collar" 형태로 방탄조끼 착용이 용이하고, 앞 부분은 지퍼 형태의 여밈 장치로 방탄조끼 착용을 위해 후크를 이용하여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방탄조끼 착용 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가슴에 달린 주머니는 사각으로 부착
- 좌측 팔 소매에는 펜꽃이가 부착되어 있고 팔꿈치 주머니에는 필요시 팔꿈치 보호대를 삽입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하의 무릎부분에도 무릎 보호대를 삽입시킬 수 있는 소형 주머니가 부착.
- 전방으로 기울게 제작된 양쪽 허벅지 주머니는 기동 간 열리지 않도록 탄성벨트를 이용하여 여닫을 수 있으며, 양쪽의 허리 주머니도 탄성벨트를 이용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



## ■ 미 해병대 전투복 : Marine Disruptive Pattern (약칭 : MARPAT)

- 미 해병대의 MARPAT은 디지털 위장무늬 패턴으로 사각 형태의 픽셀 방식으로 무늬가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전투복 위장무늬에 비해 인간 시야를 더 많이 방해하는 개념임. MARPAT 위장무늬의 원형은 베트남군의 타이거스트라이프로 여기에 픽셀 개념을 적용하여 마이크로 패턴을 개발하였으며 관련 기술로 특허 출원을 완료
- MARPAT의 유형은 세 가지(삼림용, 사막용, 도시용)로 이 중 삼림용과 사막용은 2004년에 승인되어 보급되고 있고, 도시용은 미승인. 디지털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백색 배경에서 MARPAT은 오히려 잘 드러나지만, 실제 작전환경에서의 MARPAT은 테두리 구분이 매우 어려워 기존의 위장 패턴에 비해 효과가 탁월
- MARPAT에는 어깨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 방탄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주머니 사용이 가능하며, 가슴 주머니도 사선 형태로 제작되어 방탄조끼를 일부만 개방한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주머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아울러 팔꿈치와 무릎에 소형 주머니를 달아 보호대를 삽입 가능하도록 제작
- 미 육군의 ACU와의 차이점은 ACU에서 자연색으로 존재하지 않는 흑색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MARPAT은 흑색과 갈색을 기본 색상으로 선택



## ■ 미 해군 전투복 : Navy Utility Uniform



- 신형 작업복은 구형 작업복에 비하여 기름때에 대한 저항력이 3배 이상 강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2006년 3월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되어 2007년 후반기부터 보급될 예정

## ■ 미 공군 전투복 : Airman Battle Uniform (약칭 : ABU)

- 미 공군의 Airman Battle Uniform은 2007 회계연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세탁 후 별도 손질 없이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신형 ABU는 1981년부터 착용해 오던 전군 공통의 BDU를 대체할 예정
- 신형 ABU의 시제품은 2003년에 최초 생산되었으며, 야전 시험 적용을 거친 후 최종 형태로 타이거 스트라이프 패턴을 채택하여 생산될 예정



## ② 일본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군 복장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동양권 에서도 가장 앞선 군복과 군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알아보자.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보병중심의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복과 개인장구에 대하여 매우 둔감한 편이었으나 90년대에 들어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1992년부터 신형 전투복과 장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육상자위대 장비의 최대 특징은 인체 공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이 디자인 기술의 기본은 다른 나라와는 반대로 민간 스포츠의 극기 탐험, 고산등반분야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의 큰 특징은 장갑, 배낭 등 모든 장구에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위장패턴을 도입하여 은폐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인 점에 있다.

92년 이전에 착용하던 육상자위대의 전투복 및 장비는 1965년에 채택된 형식으로 미군이 한국전에 사용하던 장비를 기본으로 하여 이와 거의 유사하며 25년 이상 거의 장비의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2년 이 신형 전투장착 세트(전투복 및 개인장구의 총칭)의 도입으로 일거에 최상의 수준으로 이르게 되었다.

1965년에 채택된 전투복(65식 작업복)은 국방색(Olive Drab)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1970년 이후 육상자위대에서는 위장복은 훈련 시에, 국방색은 영내에서 착용하였으며, 옷감의 재질은 면과 합성섬유의 혼방이다. 이 옷의 경우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상의를 하의 안에 집어넣는 방식이며, 위장패턴은 리프패턴과 유사하며 홋카이도의 지형에 맞추어 개발된 것이다. 색상은 연한 녹색, 갈색, 녹색과 진한 갈색이나 검정색을 사용



하였으며 일본지형에 적합하여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세탁을 많이 하면 다른 색은 연해지고 녹색이 두드러져서 오히려 잘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 복장은 현재 보급 순위가 낮은 일부 후방부대에서 착용하고 단계적으로 수거하여 소각중이다.

199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위장복의 정식명칭은 ‘88식 전투복’ 이나 일반적으로 ‘미채옷 2형’ 또는 ‘신미채’라고 하며,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난연 기능과 근적외선 위장기능이 추가 되었고 위장패턴은 독일의 ‘플렉탄’ 형을 채택하였으며 색상이나 모양은 일본의 풍경을 디지털 영상화하여, 평균적인 색을 도트 패턴화 한 것이다. 바탕색과 거의 동일한 명도를 가진 불규칙한 구름모양의 반점과 명도차가 뚜렷한 작은 반점을 조합한 이 위장패턴은 원거리에서는 명암이 큰 위장색으로, 근거리에서는 작은 패턴으로 주위환경과 잘 조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플렉탄 패턴’ 은 여러 위장 패턴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용도와 위장효과를 갖고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전술 교리상 포복공격을 많이 사용하는 육상자위대는 치명적인 결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근적외선 위장효과를 위해 다른 국가의 위장패턴에서 사용한 점이 이채롭다 하겠다.

위장색 패턴은 봄·여름용과 가을용 2개가 있으며, 봄·여름용은 밝은 녹색, 가을용으로는 갈색과 감색이 주종을 이루며 일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봄·여름용은 혼슈 이남에서 가을용은 홋카이도에서 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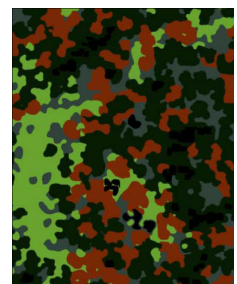
미채 2형의 형태는 미채 1형에서 많이 변화하여 미군처럼 상의를 하의 바깥쪽으로 내놓는 방식이며, 이로 인해 포복 시 흙 등의 이물질이 전투복 내부로 들어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많이 줄었으며, 바지에 손주머니가 추가, 가슴 주머니의 크기가 증대하는 등 기존 65식 작업복에서 지적되던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형과 공수 부대형의 차이는 주머니의 크기와 덧대기의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

### ③ 독일

독일은 가장 먼저 위장복을 사용하였고,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현대 군장의 모델을 제시한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강국이다.



독일의 위장복을 흔히 플렉탄(Flektarn)이라고 한다. 플렉탄은 독일어로 ‘점박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영어로 해석하자면 ‘Dot Camouflage’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었다. 플렉탄은 1980년대 독일군(당시 서독군)에게도 위장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만들어진 군복이다.



중반 팔슈름 예거 등의 공수부대에 지급을 시작으로 이전의 단색 군복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인장비 역시 신형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상의는 3포켓 타입으로 상의 가슴부분에 2곳 오른쪽 팔뚝부분에 작은 포켓이 하나 있다. 상의는 미군과 달리 아래 포켓이 없고 밖으로 빼서 입는다. 또한 미군복과 달리 타이트하게 만들어진 것이 기본 특징이다. 바지를

보면 단추가 허리춤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멜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전투복으로는 드물게 단추로 잠그는 것이 아니라 지퍼와 똑딱이 단추를 이용하여 잠근다는 것이다.

독일 군복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숏 스트레이트 컷(Shot Straight Cut) 스타일



미국의 군복과 같은 스트레이트 컷 스타일이지만 상의의 길이가 좀 짧다. 미군의 군복은 상의의 길이를 길게 하여, 주머니를 부착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군장을 착용하면 아랫주머니의 사용도 불편하고 상의가 너무 길어서 바지 주머니의 사용이 불편한 등의 불안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지만 플렉탄 전투복은 군장을 착용해도 지나치게 빠져나오지 않는다.

소재는 대적외선 은폐효과를 갖는 폴리에스터와 목면의 혼방재질이다.

## ■ 편의 장치

- 통풍장치 : 땀의 효과적인 증발과 악취유발 원인 제거를 위하여 겨드랑이 부분에 6개의 통풍 구멍이 있다.



- 후레쉬 부착장치 : 가슴의 왼쪽 부분의 2개의 단추가 있어 군장을 착용하지 않고도 야간이나, 작업시에 후레쉬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 상박의 보조 주머니 : 왼쪽팔의 윗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 군장과 관계없이 사용이 편리하다.

- 멜빵 고정 장치 : 현대 군복으로는 보기 독특한 멜빵 고정 장치가 있어 허리띠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의를 고정할 수 있다. 이는 허리의 부담을 줄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월남전 당시 미군의 작업복에도 이와 비슷한 장치들이 있었다.
- 스냅 록 단추 및 지퍼의 사용 : 전투복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장 요인이 될 수 있는 지퍼(Zipper)와 스냅 록(Snap Lock) 단추의 사용이 억제되었으나, 독일 전투복은 이러한 점보다는 신속한 착용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채용되었다.



## ■ 독특한 위장무늬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독일 전투복의 위장 패턴은 ‘플랙탄’이다. 이 위장복의 유래는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위장무늬 전투복을 채용한 나라로 WW2(제2차세계대전)당시 독일 SS부대였다. 그 당시 획기적이었던 독일군의 위장복은 단색군복에 비해 위장효과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감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위장복은 널리 퍼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위장복을 만들면 마치 독일을 흉내 낸다고 했기 때문에 여론에서 안 좋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인해 군사대국인 미국도 월남전까지 단색 위장복을 사용했다.

이후 전쟁에서의 위장복은 월남전부터 미국이 사용하였고 이 후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위장패턴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독일도 1980년대에 ‘플랙탄’ 패턴의 위장복을 개발하였다.

‘플랙탄’의 독특한 형태는 독일의 산림분포 때문이다. 독일 평야에는 포드줄(podsol) 토양이 많은데, 철분을 함유하며 또 배수가 좋지 않은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식물 생육에 지장을 준다.

포드줄을 ‘회색산림토’라고도 한다. 특징은 한랭습윤한 침엽수림에서 침엽수의 낙엽이나 마른 가지가 부식한 조부식층(粗腐植層) 아래에 명료한 표백층(漂白層)이 발달하였으며 그 하위에 갈색~암갈색~황갈색으로 표백층보다 세립질의 치밀한 집적층(集積層)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군의 ‘우드랜드 패턴’과 같은 활엽수 모양의 패턴보다는 침엽수와 비슷한 형태인 ‘플렉탄 패턴’이 개발되었다.

플렉탄은 그 위장성이 뛰어나다. 점박이 방식의 위장이기 때문에 미군의 ‘우드랜드 패턴’의 선 방식보다 위장성이 크다.

일본과 덴마크가 효율성을 인정하고 이 패턴을 채용하였고 캐나다와 미국의 해병대도 이것을 발전시킨 ‘디지털 패턴’을 채용한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덴마크 전투복과 일본의 전투복



캐나다와 미국 해병대의 신형 위장복

#### ④ 중국

중국군의 전투복은 작전 훈련, 근무 및 노동시에 착용한다. 상의는 재킷식, 오픈 칼라, 단추 5개, 양쪽 오픈 지퍼, 두개 윗 호주머니는 지퍼가 달려있고, 아래쪽에도 두개 호주머니가 부착되어 있다. 하의는 서양식 바지로서 앞쪽으로 두개의 호주머니가 있고, 바지 끝에는 밴드가 달려 있고, 남자 훈련복의 팔꿈치, 무릎, 둔부에는 두꺼운 천으로 제작되어 있다. 색상은 4가지 얼룩무늬 색으로 정찰 방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 공군은 얼룩무늬 녹색, 해군, 및 해병대는 얼룩무늬 청색이다.



중국군 외관실 담당자에 의하면 중국군은 전 복장을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예산 확보 및 디자인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 3. 전투복의 군종별 차별화가 가져올 효과

우리 군의 육군, 해군, 공군의 전투복은 얼룩무늬로 된 제복으로 통일해서 사용되고 있다. 육군의 경우에는 전생 시 전투의 장소가 지상이며 은폐와 위장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공군과 해군의 경우, 공군의 주요 전장은 비행기와 비행기장안, 하늘이고 해군의 주요 전장은 군함과 군함 위, 바다이므로 얼룩무늬 전투복은 기본 훈련 때만 착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로의 전장이 다른 육, 해, 공군이 똑같은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얼룩무늬 전투복은 입을 때에 늪늪해 보이고 기품과 위상이 돋보여야 하는데 선명한 얼룩무늬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의복의 색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첫인상 파악이 어렵고 당당하고 기품이 드러나는 이미지로서는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투복도 육, 해, 공군의 전투 영역이나 상황에 따라 위장성이 중요하기도 하고 오히려 은폐, 위장보다 각 군의 전통성, 문화성,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얼룩무늬 전투복도 각 군(육, 해, 공군)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더욱 적합하고 각 군의 역사성과 전통성, 문화성을 살리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더욱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와 남북문제, 한반도 긴장갈등, 미국의 전시 작전권 이양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 복잡한 구도 속에서 우리의 역사성, 전통성, 국가관을 더욱 확고히 확립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한 나라의 상징이고 국가수호 집단이며, 민족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위상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각 군 전투복 교체로 각 군 고유의 특색을 살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군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전투복 교체에 대한 디자인 제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이 국방과 안보를 중시, 상무(尙武)정신에 충만해 있을 때 그 나라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길을 걸어왔다. 반면 국가가 문약(文弱)에 빠져 군비를 등한시하고 군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할 때는 망국쇠락의 길을 걸었다. 지정학적 요충지로 열강과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근세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 1910년 대한제국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이는 불과 100년도 안된 얘기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같은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되어 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당해 왔다. 우리 민족은 지난 반만년에 걸쳐 930여회의 침략을 받아왔다. 역사를 통해 이렇게 많은 외침을 받은

민족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존립과 민족의 생사가 바람 앞 등불 같은 지경에 처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를 위해 가장 절박한 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력이다. 군의 존재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체를 보존하여 나라를 지키는데 있다.

창군 58주년을 맞은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결코 예사롭지 않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동북아정세 불안과 함께 중국의 동북공정 공세 및 백두산 성화 채화, 난관에 봉착한 북핵 6자회담, 일본의 헌법 개정 및 재무장 추진과 우경화, 러시아의 아시아 남진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 간 각축이 심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북핵 위협 노출과 포용정책 한계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정부의 무리한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속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국군 조직개편이 검토, 실시되고 있다. 우리 군은 국내외 정세 변화와 도전에 직면, 국가수호의 상징이자 실체로서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견지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넘볼 수 없는 국가수호와 민족통일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들의 전투복도 나라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애국심의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의 첫째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다. 군은 동시에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고 국가체제의 전복을 저지하며 국가의 대외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힘의 실체로서 존재해야 한다.

오늘날 전쟁도 총이나 칼로 싸우는 장기전인 전투가 아니라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심리전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애국심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전투복도 단순한 제복이 아닌 한 나라를 책임지는 권위와 품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민족혼의 열을 되새기고 애국심이 고취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고안되어야 한다.

전투복은 부분적으로 2004년에 군인들의 신체적 불편함의 개선방안의 일

환으로 변환기를 거친바 있다. 종래의 전투복이 4계절용이었으나 하절기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모양과 색상은 기존 전투복과 같지만 재질이 가볍고 통풍성이 뛰어난 것으로 새롭게 지급되었다.

4계절용 원단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65%, 면 35%이지만 새로 지급된 하계용 전투복은 폴리에스테르 65%, 레이온 35%로 겨울에는 면의 보온성을, 여름에는 레이온의 찬 성질을 원단에 반영하여 변화되었다. 사이즈 측면에서도 같은 사이즈라도 키와 뚱뚱함에 따라 기장과 품의 길이와 폭이 다른 전투복이 제공되었다. 소매의 경우는 전투복으로서 인명보호를 위해 긴소매로 제작되었지만 팔꿈치 위까지 7cm 넓이로 접어 걷어 올릴 수 있게 하고, 앞가리개는 제거하였다. 전투화도 가죽이 부드럽고 방수와 습기 배출이 용이한 것으로 신세대 장병의 체형과 전투 환경에 적합한 전투화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전투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활동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투복이 국가의 품위와 기상, 애국심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이므로 우리의 역사성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만의 위상과 애국심, 국가수호 정신이 담긴 전투복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 **(1) 전투복의 애국심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제안**

### **: 문양 제안**

군인이 입는 전투복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옷이요,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 놓겠다는 결의의 상징이요, 애국자가 입는 옷이다. 따라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군인의 위상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디자인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역사적 무늬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투복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디자인으로 우리나라의 상징을 의복 디자인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 ① 육군

중국에서 내세우는 동국공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상을 나타내는 고구려 벽화무늬의 패턴을 도입하는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얼룩무늬 색상을 회색이나 갈색, 옅은 녹색으로 외관상 표현하면서 투톤 형식으로 벽화무늬를 디자인하여 제작한다면 유일한 우리 군대만의 애국심과 민족기상이 스며든 전투복이면서도 위장성의 특징을 살리는 디자인이 될 것이다.



## ② 해군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를 제패함으로써 전란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기를 이룩한 명장이며, 모함과 박해의 온갖 역경 속에서 일관된 그의 우국지성과 고결한 인격은 온 겨레가 추앙하는 의범(義範)이 되어 우리 민족의 사표(師表)가 되고 있다.

우리 해군은 모두가 충무공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 ③ 공군

미래에는 전시상황이 지상전보다 공중전이 더 강화될 것이다. 예를들어 이라크 전쟁에서 초기에는 공중전의 전투로 진압하고 전투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지상전이 투입되는 현상이었다. 우리나라도 미국 국방부가 태평양 사령부(PACOM) 예하에 '한반도 공군 전투지휘본부(AFKOR WFHQ · Airforce Korea War Fighting Headquarters)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지상 작전을 주도하면 주한 미군은 공군전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와 디지털화되면서 점점 최고의 정보, 고도의 심리전, 최신 무기의 활동력이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항법, 정수, 그리고 체온 통제 시스템이 장착된 첨단 전투복을 입고 전시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의 군복'은 오브젝티브 포스 워리어(Objective Force Warrior)로 군인의 체온을 조절하며 사계절 방수가 되는 전투복이며 오줌이나 땀과 같은 오수를 식수로 바꾸는 정수체계도 완비하고 있으나 옷무게는 가볍고, 방탄모 앞 부분에 스크린이 부착되어 전투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향후 10년 내 개발 예정이다.

랜드 워리어(Land Warrior)도 개발하고자 하는데 우주복과 생김새가 유사하며 내장된 적외선 센서가 어둠 속에서도 적군의 열을 감지하는 병기와 연결되는 등 통합체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군인들이 수시간 전에 작성된 지도를 보고 작전을 전개했으나 '랜드 워리어'에는 방탄모에 정착된 위치확인 시스템(GPS), 소형무선 음성기, 자료통신 시스템, 그리고 LAN(근거리 통신)과 연결된 착용 가능한 컴퓨터가 완비되어 매분 정보습득이 가능하다. 또 방탄모에 장착된 화면과 병기와 연결된 열 및 야간 센서를 통해 어둠속에서도 주변의 탐지가 가능하며 이 화면은 적군과 아군이 포진한 상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이같은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소총

윗부분의 열 이미지 센서를 통해 적군을 포착해 자신은 벽 뒤로 숨거나 몸을 숨기고 발사를 하더라도 이미 포착된 열 이미지를 향해 날아가 적을 가격한다. 소재는 탄소섬유로 만들어지고 리튬 건전지로 작동하는 이 전투복은 무게가 기존의 90파운드에서 50파운드까지 감소한다. 2025년의 전투복은 첨단 기술을 앞세워 미국은 막강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꿈의 군복’을 만들어 낸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현재 군인들의 전투복에 국제 감각과 애국심, 편리성 효율성이 디자인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군의 디자인으로는 과거 전투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날쌔고 민첩한 매의 형상을 기본 문양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전투복 색상 디자인 설계

육군은 회색을 기본 톤으로 녹색과 갈색을 포함시킨 디자인으로 고구려의 기상을 문양화한 패턴을 제안하고, 해군은 해군의 상징인 흰색을 기조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문양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공군은 파란 하늘색을 기조로 매라든지 고구려 발해의 지도를 문양패턴으로 하여 제작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전투복 개선 디자인 설계

현재의 디자인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 안으로 넣어 입는 점, 즉 상의 겹속형(상의를 하의 속으로 착용)을 상의 개방형(상의 하의 밖으로 내는 것)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둘째, 여름에 소매를 걷어 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셋째, 주머니가 단추라서 열고 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단추 여밈이 불편하다. 넷째, 바지 밑단의 고무링 사용이 불편하다.

## ① 상 의

1971년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으면 키가 작아 보이고 외관상 불량하다는 이유로 71년에 입었다가 2년만인 74년에 폐지되었으나 현재 군인들은 상의를 밖으로 내어 입기를 원한다.

군인들은 요대와 탄띠, 그리고 전투 배낭의 하부 받침 부분이 3중으로 허리에 마찰되어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물 논이나 정글 속의 늪지대에서 포복해야 하는 병사들의 허리 속으로 해충까지 침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디자인에서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인들의 동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허리 마찰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탄띠 중량으로 인하여 군인들의 전투복 하의가 흘러내리는 현상이나 전투 행동 시 하의 속으로 오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비상시 윗옷을 바지 안으로 밀어 넣는 복장의 착용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 **디자인 교체안** : 이렇듯 전투복을 개방형으로 바꾸려면 상의에 칼라, 단추, 주머니의 디자인을 바꾸어야 한다. 전투복이 편리하도록 주머니를 앞 양 옆에 2개 더 달고, 전투복 겉옷에 단추 대신 지퍼를 달며, 소매단과 주머니는 벨크로로 단게 한다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시간이 절약 될 것이다.

현재 전투복은 주머니가 밖으로 부착되어 시선이 흩어지므로 새로운 디자인은 외관적으로 주머니를 안으로 넣어 심플하고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이도록 하고자 한다. 소매에 주머니를 부착하고 미군처럼 마크를 앞쪽에 하기보다 소매에 부착시키는 것도 새롭고 은근한 이미지로 더 멋스러워 보일 수 있다.

칼라는 레귤러 칼라(역사가 깊은 전통적인 스타일로 기본 스타일)를 변형하여 디자인하면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차이니즈와 유사한 모습이면 서 목도 보호되고 지퍼를 내리면 레귤러의 형태가 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② 하의

전투복 하의는 군화 속에 넣어야 하는데 현재 고무줄을 이용해 쉽게 들어 가도록 하고 있으나 전투 시에 매우 위험하다. 고무줄을 넣은 바지는 쉽게 올라가고 종아리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어 전투 중에 군화 속에 오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 **디자인 교체안** : 전투복을 군화 속으로 넣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 하의의 밑단 둘레에 벨크로가 부착된 밴드(띠)를 부착하는 것을 제안한다. 단정히 접어지기 때문에 외관상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바지에 주머니를 달아 소지품을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 ③ 소재

전투복의 소재는 '통기성 부족, 땀 흡수가 안 되어 몸에 감긴다, 방수가 안 되어 비가 오면 활동성에 제약이 있다. 옷감 재질이 뻣뻣하다. '전투복이 무겁다'라는 불만들이 있다.

- **디자인 교체안** : 최근에는 등산복이나 운동복에 통풍이 잘되고 땀 흡수에도 좋은 기능성 소재들이 많이 있다. 전투복에 응용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 가볍고 부드러운 기능성 소재를 응용하면 된다.

충을 피할 수 있는 방탄조끼가 부착될 수 있도록 안감을 덧대어 디자인하는 것이 좋다. 방탄조끼 대신 겨울에 추우면 속옷을 하나 더 덧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설계하고자 한다.

#### ④ 신체 맞춤새

전투복의 신체 맞춤새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 ‘길이가 길다. 키에 비해 허리사이즈가 크다, 어깨, 허벅지가 불편하다.’

- 디자인 교체안 : 상의 사이즈를 길이 구분, 품을 세분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80cm의 키라도 상의를 상, 중, 하로 길이를 각기 다르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품을 상, 중, 하로 세 종류 구분하면 좀 더 맞는 사이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 론

앞서 살펴본대로 각 군의 '정체성'과 '자긍심'은 고취시킬 수 있는 전투복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투복 디자인에 있어서 각 군(육·해·공군)마다 차별화시키되, '육군'은 얼룩무늬 디자인이면서도 과거 만주지역까지 진출했던 고구려 기상이 들어간 패턴으로 하고, 통합된 회색을 기본 톤으로 녹색과 갈색을 포함시킨 문양으로 디자인 한다면 육군으로서의 상징을 드러내게 되고 육군만의 결속과 소속감, 애정 및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해군'은 해군의 상징인 흰색을 기조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문양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을 한다면 역시 다른 군과는 차별화를 가지게 되고, 자군끼리는 소속감과 애정,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공군'은 파란 하늘색을 기조로 매라든지 고구려 발해의 지도를 문양패턴으로 하여 제작한다면, 무엇보다도 높은 애국심, 조국사랑, 조국 수호, 소속감, 연대감, 결속력이 강화될 것이다.

새로운 전투복은 실용성, 효율성, 편리성이 높아야 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세련되고 멋스럽게 보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첨단 소재를 응용하여 불편한 기능을 편리하도록 교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단추를 없애고 지퍼나 벨크로(찍찍이)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위급한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나노 기술을 응용하고, 가볍고 몸의 보호기능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머니 사용, 옷 입고 벗기 등을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해야 할 것이다. 구김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여 세탁에 편리하며,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 흡습성, 보온성이 높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를 위해 가장 절박한 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력이다. 군의 존재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체를 보존하여 나라를 지키는데 있다.

전투복의 새로운 디자인 교체는 국민들에게 군의 이미지 확립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투복의 상징은 군인이나 국민에게 모두 매우 중요하다. 군인들에게는 사기와 자부심, 애국심, 국가수호의 의지를 높여 주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세계 속의 한국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군의 자랑스러움, 평화, 안정,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애국심 상승’, ‘효율적인 기능’, ‘신체적 활동성의 편리성’ 등의 무형적인 부가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전투복 1벌에 약 2만 5천원이 소요되므로 전투복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약 150억원이 소요된다. 당장 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해군·공군의 전투복부터 바꾸고 육군의 경우는 예산 확보상황을 감안하여 점차 바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의 전투복을 입음으로써 우리겨레의 자부심과 긍지가 강해지고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 투철해진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다. 국민은 국가수호의 의지가 투철한 군인을 믿음으로써 튼튼한 나라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더욱 부강해 질 것이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편안하게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강한나라’, ‘좋은나라’, ‘바른나라’로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소국으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군의 미래를 그려본다.

< 참고문헌 >

- 김정자, 한국군복의 변천사, 민속원, 1998
- 최지숙, 육군 전투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구자원, 한국군의 개인장구 개선을 위한 디자인 연구 - 전투복 및 개인군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7



www.gsj.or.kr

강한나라 바른나라 좋은나라



**Start &  
Jump**

국회의원 **공 성 진**

www.gsj.or.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5호실

TEL : 784-6313~6314, 788-2480 FAX : 788-3835 e-mail : gsj@na.go.kr